



## 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

### 1 식품 공급과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계획<sup>1)</sup>

- 유럽연합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식품 공급이 이루어졌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식품 공급 위기가 발생하였고,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함.
  -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공급 위기 발생으로 유럽연합의 식품 공급 사슬은 이에 대응하는 회복력을 보여주었으나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필요성을 인지함.
  - 코로나19 외에도 식품 공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요 외부 요소로는 △기후변화, △천연자원의 고갈, △사이버 공격, △지정학적 변화 등이 있음.
- 유럽연합 회원국뿐만이 아니라 비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여 국제적인 관점에서 식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함.
  - 농업, 어업, 식품 공급 사슬 참여자들에게 정책 및 재정지원을 시행함.
  - 상품의 자유로운 거래가 유럽연합 단일시장과 세계 시장에서 일어나도록 촉진함.
  -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필수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함.
- ‘농장에서 식탁까지’ 전략에서 제시된 비상계획(contingency plan)은 농업, 양식업 및 어업, 식품산업 등과 건강, 교통, 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을 강화하며, 이 모든 영역에서 식량 공급 및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5가지 원칙을 제시함.
  - 5가지 원칙: ① 공적 및 사적 영역의 협업을 강화, ② 식품 공급 사슬 내 상호의존성을 고려, ③ 국내외 상품 및 노동의 흐름을 개방, ④ 균형 있고 신뢰도 높은 의사 전달과 시장 정보를 제공, ⑤ 정보 교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.

1) 유럽연합위원회의 “EU Contingency plan to ensure food supply and food security in times of crisis”(2021.11.1.) 내용을 미래정책 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(<https://www.europarl.europa.eu/>).



## 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- 유럽연합의 비상계획은 유럽 식품 안보 위기 대비 및 대응 메커니즘(European Food Security Crisis preparedness and response Mechanism, EFSCM)을 기반으로 진행됨.
  - 유럽연합위원회, 회원국, 식품 공급의 사적 영역 참가자, 비유럽국가들이 참여하여 EFSCM 을 구성함.
  - 전문가 집단들은 유럽연합의 식품 공급 및 안보 이슈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논의하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함.
  -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은 △식품 공급 사슬에서의 미래 위험과 취약성을 모니터링, △위기 대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도구 탐색, △회원국 및 이해관계자 맞춤형 논의를 통한 의견 반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함.

### | 위기 상황에서의 식품 공급과 안보 확립을 위한 비상계획 수립 |

| 행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행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점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EFSCM을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전문가, 비유럽연합 국가들을 포함하여 수립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2분기            |
| 사적 영역의 기관에 속한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, 이해관계자                  | 2022년 4분기            |
| 유럽연합 기관과 대중을 위한 주기적인 대처 상황 및 활동 보고서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연말부터 1년마다      |
| 식량 공급 및 식량안보 위기 발생 시 정기적 혹은 임시 전문가 그룹 소집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2분기부터 최소 연간 1회 |
| 유럽연합 식량안보 위기 대처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교환 디지털 플랫폼 설립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4분기            |
| 유럽연합 식품 공급 사슬과 인프라 등 구조적 이슈를 포함한 위험과 취약성 지도 구성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년 4분기            |
| 식품 공급 및 안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 개발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4분기            |
| (특히 위기 상황에서의) 정보 기술을 활용한 식품 시장 투명성에 관한 연구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럽연합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4분기            |
| 정책 제안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 사슬의 다양성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 집단<br>(유럽연합위원회, 회원국, 이해관계자) | 2023년 2분기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 공급과 안보에 관한 논의 가이드라인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3년 2분기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식품 공급 사슬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한 위험과 취약성을 다루거나 줄이는 방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4년 2분기            |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2.02.28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

## 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### 2 Fit for 55와 농촌에 대한 지원<sup>2)</sup>

- 유럽연합의 'Fit for 55'는 2055년까지 회원국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을 지원하는 정책 패키지이며, 이는 유럽연합의 농촌이 기후 중립(climate-neutral)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.
  - 'Fit for 55'는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% 감축을 목표로 유럽 연합의 토지 이용, 에너지, 교통, 세금 정책 등에 전방위적으로 'Fit for 55'가 적용되고 있음.
- 유럽연합의 정책은 가격 결정(pricing), 정책 대상(target), 기준(standards), 지원 방법(support measures)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법안을 강화하고,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.
  - 정책적 지원은 영향평가를 통해 평가되며, 가격 결정, 정책 대상, 기준 간의 균형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함.
- 공동농업정책은 농업과 임업에 대한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도움을 줄 수 있음.
  - 토지를 기반으로 한 농업과 임업<sup>3)</sup>은 'Fit for 55' 패키지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음.
  - △친환경 생산 지원, △조림 및 식물 기반을 통한 탄소 고정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공동농업정책에 포함시켜 Fit for 55에 기여하고자 함.
  -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, EIP-AGRI, Evaluation Helpdesk for Rural Development 등은 공동 농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들에게 네트워킹, 정보, 재정지원 기회, 기술 등을 제공하여 기후 친화적인 미래 농촌을 구성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음.

2) 유럽농촌개발네트워크의 "Helping rural Europe become Fit for 55"(2022.2.1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 (<https://enrd.ec.europa.eu/>).

3) Land-based sectors로 구분된 농업과 임업은 토지 사용 전환(land use)과 함께 'Fit for 55' 패키지를 통해서 2030년까지 약 3억 1,000만 톤의 CO<sub>2</sub>eq를 감축하여 기후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


## 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| 'Fit for 55'의 중점 정책 방향 및 지원정책 |

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2.03.14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